

“송년회 대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 선사”

현대차 전주공장 기능장회, 연탄 나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기능장회 송년회 비용을 아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쳐 연말을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11일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나눔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 진행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연말 봉사활동이다. 지난해의 경우 2000장(1장당 500원)의 연탄을 도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올해는 지난 10일 회원 및 가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인후동 일원에서 전주연탄은행과 함께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 6곳에 직접 사람의 연탄 1800장을 실어 나르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에 전달될 연탄은 총 2500장(1장당 700원)이다.

기능장회 박성관 회장은 “송년회라는 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지는 게 주목적인데 먹고 즐기는 대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편이 좀 더 의미 있는 한 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전주공장 기능장회는 국가기술자격 인 기능장 타이틀 보유자들로 구성된 이 회사 사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기능장회는 전주연탄은행과 함께 회원 및 가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인후동 일원에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 6곳에 직접 사람의 연탄 1800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전주공장 제공)

스터디 모임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1년 5명의 기능장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달 기준 총 103명의 기능장을 보유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상 순창공장, 따뜻한 겨울나기 바자회 열어

대상(주)순창공장(공장장 임병용)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북지역본부장 소동하)은 순창지역 저소득가정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미원을 위해 청정원 바자회 노사공동 후원행사를 12월 9일 대상(주)순창공장 사무동 앞 일대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순창지역의 저소득가정 아이들의 주거 개보수비, 학습비, 의료비 및 난방비 마련을 위해 대상(주)제품 및 농산물 제품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환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로 15회째 진행되고 있어, 매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더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는 청정원 자사제품판매, 농산물 협찬제품 판매, 일일차집, 먹거리장터, 놀이마당, 버블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3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였다. 특히 정류홍보관에서 부대행사로 청정원어린이회 회원들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상(주)순창공장 임병용 공장장은 “노사가 함께한 바자회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꾸준히 행사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7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호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6-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8866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9645-933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6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원광대 천연물CSI인재양성 사업단 재능 나눔 봉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천연물CSI인재양성 특성화사업단 참여 학과인 한약학과 학생들이 최근 원광효도마을 노인복지센터와 효도의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공연계 재능 나눔 봉사’를 펼쳤다.

학생들은 전공수업을 통해 배운 처방으로 제조한 한약재를 효도의집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복용법과 겨울철 건강관리법을 안내했으며, 어르신들과 말동무 시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서 오는 뿌듯함을 느꼈다”는 학생들은 “전공지식을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실무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 뿌듯했다”며, “효(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한약학과는 지금까지 전북에 소재한 복지기관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서 오는 기쁨을 일깨워 주고, 전공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결론

▲인진출(인석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국장·김경욱씨 장남)군·박현지(박성웅씨 장녀)양= 일시: 12월 16일(토) 오전 11시 10분, 장소: N타워컨벤션센터 1층 바즈홀, 연락처: 010-3658-1899

진안자활센터 김수현씨, 자활사업 성공수기 공모전 대상

진안지역자활센터 김수현(39.여·사진)씨가 2017 보건복지부가 주관 ‘자활사업 성공수기’ 공모전에서 대상과 함께 포상금 100만원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결혼이주여성인 김씨는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개인별 맞춤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함께 다양한 사례관리로 한국인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그 결과 지난 3월 지역업체인 늘푸른영농조합에 취업·탈수급하여 자활에 성공했다.

특히, 자신의 모국인 베트남에서의 삶에서부터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 그리고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에 성공하기까지의 내용을 수기에 진술하고 담백하게 담아냈다.

김씨는 “대상을 타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진안지역자활센터가 큰 버팀목이 되어줬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여성자원활동센터, 진안사랑 장학금 쾌척

진안군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한은숙)에서 지난 홍삼축제 기간 동안 홍삼호떡, 홍삼튀김 등 각종 음식을 판매한 수익금 중 100만원 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진안군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의 취업과 참업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지역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은숙 회장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재 양성에 지역이 앞장선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은 진안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 정인 스님, 임실 6탄약창 방문 위문품 전달

전주 정인 스님(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 지회장)과 이재만(공로대표), 장옥수, 열정희 위원 등은 지난 8일 임실 6탄약창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프로폴리스 차약 200개, 수제 초코파이 200개, 검은콩 두유 200개, 6년근 홍삼 4상지이다.

정인 스님은 “앞으로 더욱 어두운 곳을 찾아 작은 힘이지만 서로 힘을 합쳐 봉사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제 6탄약창 배회관(대령)은 “부대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민 기자

고창경찰서, 인권보호 강화 순회 토크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청문감사실은 분서 각 부서와 지·파출소를 찾아 인권보호를 위한 토크를 갖고 있다.

내부 고객의 인권보호를 위해 갑질, 성 비위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원 개개인이 바르게 행동하고, 외부 고객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각 지·파출소는 물론 교통, 수사부서 등 대민 접점 부서에 친절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매뉴얼대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직원들은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내·외부 인권 보호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은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속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큰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세척부터 유통까지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illin.kr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임실고추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 세질건고추 고춧가루